

# 오피니언

## 다산포럼

송재소



지난 1월 11일 북경의 천안문 광장 옆에, 높이 7.9m의 거대한 청동 공자상이 세워졌다고 한다. 이전에도 2001년 인민대학에 공자상이 세워졌고 2002에는 산둥대학에 공자상이 세워진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세워진 동상은 중국을 상징하는 공간인 천안문 광장 바로 옆, 모택동의 대형 초상화와 비스듬히 마주보는 곳에 세워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추방되었던 공자가 공식적으로 다시 귀환한 것이다.

사실상 공자는 역사적으로 부침(浮沈)을 거듭한 인물이었다. 춘추시대 말기에 공자가 창도한 유학은 한때 3000여 명의 제자를 거느렸다고 하는 큰 집단을 형성했으나 당시의 제자백가 중의 한 학파에 불과했다. 공자 자신도 생전에 그의 경륜을 펼칠만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진(秦)나라 때에는 이른바 분서경유(焚書坑儒)로 인하여 참혹한 수난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공자의 사상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한무제(漢武帝) 때였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제국을 건설한 한무제는 기원전 136년에, 목가(墨家)나 도가(道家)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특히 계층 간의 신분질서를 중시한 공자의 사상을 통해 이념으로 삼을 것을 천명했

다. 공자 사후 343년만의 화려한 귀환이 있다. 여기에는 '군권신수설(君權神授說)'을 주장한 동중서(董仲舒)의 강력한 건의가 큰 역할을 했다.

이후 공자의 사상은 2000여 년간 중국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주도적 사상으로 군림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시대를 초월한 공자 사상의 보편적 가치가 기반이 되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역대 왕조의 통치자

들이 정치적 목적에서 공자를 영입한 일면도 없지 않았다. 과연 1911년 신해혁명으로 왕조체제가 무너지고 공화정이 수립된 후 공자는 서서히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1919년의 5·4운동 때는 "공자주의를 타도하자"는 구호까지 등장했다. 당시 중국이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만신창이가 된 원죄를 공자와 유학사상에 돌린 것이다. 1949년 모택동의 신중국이 성립된 후에도 공자는 복권되지 못했다. 공자 비판이 극에 달한 것은 1966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문화대혁명 기간이었다. '批林批孔(批林批孔)'의 가치 아래 홍위병들은 공

이 시기에 공자를 다시 불러온 중국의 의도에는, 봉건시대 역대 왕조의 통치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었던 것 같다. 1990년대 급속한 경제적 발전의 부산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로 인하여 계층 간의 갈등이 격화되자 이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공자를 귀환시켰다는 인상이 짙다.

공자는 영원히 살아있는 인류의 스승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갖가지 고통을 다 겪은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해괴한 주장을 펼친 자가 있었다. 인(仁)과 의(義)를 바탕으로 덕치(德治)와 예치(禮治)를 펼치고자 했던 공자의 사상을 중국의 현 지도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할지의 여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오직 어진 자라야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다"(唯仁者能好人能惡人)는 공자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또다시 공자를 미워하여 추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성균관대 명예교수·전통문화연구회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공자의 귀환

자와 관련된 모든 것을 파괴했다. 이제 공자는 중국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된 듯이 보였다.

이런 수난을 겪은 공자가 다시 귀환한 것이다. 그것도 신해혁명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에, 더구나 문화대혁명을 촉발시킨 모택동의 초상화와 마주보는 자리에 위풍당당한 공자상이 세워졌다.

## 시설

### 취업난에 지역 중소기업은 인력난이라니

기업이 전남에 와도 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은 서울·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대거 빠져 나가 지역 중소기업들이 인산적인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 유치된 기업 가운데 31개 기업에서 589명의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 대불산단에 입주한 한 반도체 부품 생산업체는 지난해 9월 10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고작 33명만 확보했다.

이 같은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젊은층이 지방기업은 처우가 낫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 수도권 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실업률 고교와 이공대를 나온 기술인력들이 지역기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전남지역 20대 연령층 가운데 3.6%가 타지역으로 빠져나가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젊은 인력의 지역기업 외면 현상은

방치하면 지역발전은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다. 탄탄한 중소기업이 많아야 지역경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쓸만한 인력을 구하지 못한다면 어느 기업이 전남에 오래고 하겠는가.

실업률은 높은데 중소기업이 인력난에 허덕이는 현상은 취업 희망자와 기업의 눈높이가 서로 맞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취업 희망자들은 보다 나은 보수와 복지를 원하면서 힘든 일은 꺼리고 있고, 반면 중소기업은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 희망자와 중소기업의 엇갈린 입장을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 정부·지자체·중소기업이 함께 나서 청년 실업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역 인력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도 지역인력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전학사태' 그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다

신학과 이사철을 맞아 광주 시내 중학교에서 '전학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외지에서 광주로 직장을 옮겨 이사했었지만 자녀를 전학시켜 할 중학교가 정원외로 차서 입학할 수 없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사립 중학교는 전학대기 순번에 이름을 올려 놓고 자리가 비면 기다리고 있다니 그야말로 '과열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수용인원의 한계가 있어 학생을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만 펴고 있다. 추첨을 통해 학생들을 각 학교에 100% 배정한다며 나머지 5%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충원할 수 있지만, 그 인원이 이미 채워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배정까지 끝난 후에 전학을 시켜야 하는 학부모들의 경우 교육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물론 교육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정원이 다 찬 상태에서 학생들을 수용하라고 강요한 것은 무리

다. 수용인원을 마냥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지나쳐 종나물 교실이 되고 공립학교는 텅 비는 등 교육환경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전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주지 못해 늦거나 학원 등지를 전전한다면 이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추가 입학에 따른 '전학사태'가 해마다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했다면 예상되는 요인 만큼 정원을 늘려야 했다. 또한 교육청의 주장대로 전학문제가 사립 중학교 과열현상이 손에 익은다면 그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다. 학부모들이 사립학교를 선호하는 것은 '실적에 대한 기대'가 공립학교에 비해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더 이상 전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은 공교육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식이든 학습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울러, 정원 조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NGO 칼럼

김광훈



얼마 전 업무 차 고속버스를 이용해 서울을 가던 길의 에피소드다. 운행도 하기 전, 어떤 승객이 기사님을 향해 "너무 추워요, 히터 좀 틀어주세요"라고 한마디 했다. 평소 겨울이면 어김없이 내복을 입던 나로서는 "마치 좋은데"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다른 사람들은 추운가 보다"라고 의견을 존중했다.

하지만 이도 잠시,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상황이 바뀌었다. 다들 쾌적(?)의 상태를 느꼈던지 옷들을 하나씩 벗었고, 심지어 짧은 반팔 옷을 입은 채 잠이 든 사람도 있었다. 이에 반해 '마치 좋은데' 입장의 사람들은 불편의 시간이 시작되

었다. 대신 정유업계는 애써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물가대책으로 정부의 압력에 마지못해 가격을 쥐꼬리만큼 내렸는데 이번 기회에 만회를 할 수 있는 호재를 만난 것이다.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단지 시기만을 기다리는 눈치다.

불안한 것은 서민들이다. 그나마 추위가 한풀 꺾였지만, 계절이 바뀌는 이런 시기에 감기를 비롯한 환절기 질병이 자주 발생한다. 에너지가 줄어드지만 먹고 살아야하는 현실에서 물가는 어떤가? 죽지 못해 산다는 표현이 맞을

### 아직은 내복을 벗지 말자!

었다. 내복만 입어야 하는 시점까지 도달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출고 다량의 차이는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그날의 버스 안 풍경은 요즘의 에너지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했고, 쓸쓸함을 남겼다.

두바이유 현물 거래가격이 배럴당 110달러를 기록했다. 100달러선을 넘어선 이후 불과 3일 만이고, 2008년 9월 1일 이후 처음이다. 북해산 브렌트유, 서부텍사스중질유(WTI)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대부분 원유공급 기준은 두바이유 기준이며, 물가 또한 이를 보고 결정한다. 당분간 상승 기세가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

이는 이집트,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 사태와 북반부의 폭설로 인한 에너지 사용 상승 등이 원유가격 하락을 견제할 수 있는 배경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3차 오일쇼크의 현실화를 감지했고 220달러까지 전망하는 보고서도 발표하였다.

정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며, 이 사태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못하다. 지구온난화에 의해 습윤지대에서는 폭우 가능성이 높아지고, 건조지대의 강수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은 점점 확대되는 반면, 동남아시아 몬순기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의미의 보고서 일부다. 2010년 가을 영국에서는 물난리를 겪는 동안 중국 남동부 지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은 엄청난 폭설로 인한 피해를 겪어야 했다.

북아프리카 사태가 원유가 및 물가의 상승을 유발하였다고 답을 못 내는 정부만을 바라보고 있지 말자. 우리 스스로 찾아야한다. 봄과 가을이 짧아지는 기후변화 시대의 대응, 적응 방법은 내복을 아직은 벗지 말자는 것이다. 매년 11월은 에너지 절약의 달이다. 또 하나의 달을 추천하면 3월이다. 3월까지의 난비보다는 줄여야하는 계절임에 분명하다. 더 슬래야 쓸 것도 없지만 줄여보자.

〈광주시그린스타트네트워크 자정거 실천단 단장〉

### 유학 후 병역기피자 제재 수단 강구해야

최근 군대에 가야할 시기에 유학을 간 뒤에 귀국하지 않는 병역기피자가 늘고 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전쟁을 하거나 위기에 처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조국을 위해 총을 들고 나가 싸운다고 한다. 굳이 그런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군대에 가지 않기에 유학을 떠난 후 귀국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떠난 뒤 귀국하지 않는 남성의 숫자가 지금까지 600여명이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을 귀국

시키기 위한 방안이 없다. 특히 이들이 만 35세가 넘어 귀국을 한다고 해도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공소시효가 소멸돼 형사 처벌 대상도 되지 않는다.

벗이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자기 하고싶은 일, 자기 갖고 싶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저출산을 걱정하고 그 때문에 10, 20년후 병역 인구마저 부족할까 걱정인 나라에서 병역기피자만 늘어나고, 그들을 제재할 수 단마저 없으니 참 실심스럽다.

▲유상규·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 기고

방종식



인간은 늘 강과 함께 살아왔다. 강변에서 시작하여 삶의 터전을 일구고 문명을 꽃피워 왔다. 황하와 인더스가 그렇듯 우리 영산강도 마찬가지이다. 최상류 담양, 장성에서 광주, 나주를 거쳐 무안, 목포에 이르기까지 영산강변에서 호남의 천연 문화가 태동하고 발달되어 왔다. 송순(宋純)은 '만양정'에서 영산강의 아름다움을 노래했고, 이만영은 '목포의 눈물'에서 유달산과 영산강의 애환을 노래했다. 이러한 역사, 문화적 의미로 인해 영산강은 비록 유해 거리가 짧고 유역면적도 작지만 한강, 낙동강 등과 더불어 당당히 4대강에 이

은 의의를 간단하다. 우리가 영산강을 다시 먹는 물로, '상수원 수'로 다시 받아들여 영산강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다. 혹자는 "수질이 먼저 개선되어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민의 의지와 비전이 없이 수질개선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리도 만무하다.

기회도 나쁘지 않다. 정부는 영산강을 2급수(좋은 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노력하고 있다. 갈수기에 모자라는 유량을 증대하기 위해 14개 농업 저수지 등 농업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가장 오염부하가 큰 광주권

### 영산강을 다시 '먹는 물'로

를 줄여왔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영산강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흐르던 물은 말라갔고 오염으로 물때가 끼고 악취가 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영산강 물을 더 이상 먹지 않았고, 심지어 강 가까이 살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15년 전 영산강 수계 마지막 무안 뚝담 취수장을 폐쇄하기 전후의 일이다. 이후 영산강은 사실상 잊혀진 강이었다. 한강, 낙동강이 계획대비 100% 이상의 투자를 하여 왔으나, 영산강은 계획대비 절반도 투자를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갈수기에 4~5급수에 이를 정도로 수질은 가장 나쁘다. 이는 영산강의 용도가 뚝담 취수장 폐쇄 이후 농업용수로 격하되어 정부투자의 우선순위에 밀려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영산강의 품격이 다른 3대강에 비해 격하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영산강을 먹는 물로서 기능을 포기한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가까이 있는 영산강을 포기하고 호남 전권역이 멀리 주안호, 장성호 등에서 물을 끌어다 쓰고 있다. 이처럼 상수원을 특정호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가뭄 등 천재지변 발생 시 위기관리 차원에도 매우 취약하다.

영산강을 다시 과거처럼 살리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영산강을 다시 과거처럼 살리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하수처리장 방류수질을 대폭 개선하는 사업과 광주천 등 오염이 심한 지류·지천의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영산강의 미래에 대해 지역민 모두가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 스스로 영산강의 품격을 '농업용수'로만 규정하여서는 영산강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정부로부터 이끌어 낼 수 없다. 이제 영산강에 대해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할 때다. 지역민 모두가 영산강을 다시 회복해야 할 '상수원'으로 비전과 인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자치단체가 마련한다면 영산강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담양 '영산강 상수원 회복운동' 이라도 벌여야 할 이유인 것이다. '강 살리기 사업'을 통하여 개선된 수질을 토대로 새로운 생활용수 취수원을 영산강 본류에 다시 만든다면 우리가 영산강을 다시 상수원으로 받아들이는 상징이자 사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정부의 투자 또한 순차적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영산강, 이제는 남도민의 생명수로 부활시켜야 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로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無等鼓

최근 전 세계 언론에 가장 많이 오르 내리는 지명은 단연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일 것이다. 42년 동안이나 철권을 휘둘러 온 카다피를 무너뜨리기 위해 나선 리비아 시민무장군들이 트리폴리 진영을 시도, 격전이 벌어지는 바람에 언론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트리폴리를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는 카다피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살상하고 있는 것으로 외신들이 전하고 있다. 카다피 추종 세력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해준 전투까지 동원해 시민들을 쓰러뜨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동요를 종식하기 위한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누가 마지막 순간에 트리폴리를 장악하는가 리비아에 번지고 있는 '자스민 혁명'의 종착점이라고 볼 수 있다.

지중해 연안 항구도시 트리폴리의 주인은 술하게 바뀌어 왔다.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건설된 트리폴리는 이후 로마인(BC 146~AD 450), 반달인(5세기), 비잔틴 제국(6세기)에 차례로 점령당했다.

645년에 마호메트를 따르는 아랍의 전사들이 이곳을 점령한 이래 트리폴리는 아랍인의 수중에 들어갔다. 1510년에는 스페인의 공격을 받았으며, 1551년에는 투르크인들이 손에 넣기도 했다. 그 후 이곳은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 수도가 되었으며, 1911~43년에는 이탈리아의 통치를 받았고, 그로부터 1951년 리비아가 독립할 때까지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

40여년 전부터 트리폴리는 카다피의 철옹성이었다. 1965년 리비아 육사 졸업 후 권력의 뜻을 품고 자위장교단을 결성한 카다피는 1969년 9월 국왕 이드리스 1세가 국외여행을 하는 틈을 타서 쿠데타를 결행했다. 이후 트리폴리는 혁명수비대 등 카다피 추종세력이 철벽을 쌓아 오늘에 이르렀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타오르고 있는 '자스민 혁명'의 정점에 서 있는 트리폴리의 운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특기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 트리폴리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문화홍보국 2200-541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A X 222-8005>	<F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A X 227-9500>	<F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